세계 최대 염료기업 탄생

Hoechst · Bayer 합작사 신설키로 … 지각변동 예고

세계적인 염료 선발메이커인 독일의 Hoechst와 Bayer 양사가 염료사업 부문을 서로 떼어내어 합작기업으로 재편성키로 결정했다고 일본의 화학공업일보가 보도했다.
이들 양사의 이같은 움직임은 최근 아시아의 화학기업들이 경쟁력을 갖고 급부상하는 가운데 선진국 염료기업들이 구상하고 있는 대형 산업재편의 일환으로 풀이되고 있다.
조만간 EU 위원회의 인가를 거쳐 95년중 50대50 투자로 새회사를 설립, 생산에서 판매에 이르기까지 일관 사업체제를 구축한다.
이로써 연간 매출액 30억달러 규모의 세계 최대 염료 전문기업이 탄생, 염료업계에 새로운 지각변동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의 경우 Hoechst와 三菱化學이 공동출자한 三菱化成 Hoechst도 이같은 재편성의 물결에 말려들 전망이다.
염료사업은 독일의 선발 3개 메이커와 영국의 ICI 등 유럽기업들이 세계시장에서 주도권을 행사해왔다. 하지만 주요 수요분야인 섬유산업이 아시아 지역으로 속속 이전함에 따라 아시아 지역에서도 경쟁력을 갖춘 염료기업들이 부상하고 있다.
이때문에 유럽측 메이커들이 수익하락을 경험, 생산축소에 나서는 등 아시아 기업들에 대한 경쟁력 확보 노력을 전개해왔다.
Hoechst의 경우 이제까지 독일 국내에서의 염료 중간체 생산을 크게 축소하는 한편 인디아의 출자 자회사인 카라켐을 통한 사업확대를 도모해왔다.
하지만 Hoechst는 보다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방안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Bayer 과의 합작을 결정했다. 이로써 연구개발에서 생산 · 판매에 이르기까지의 염료사업을 일괄적으로 합작 자회사에 이전시킨다는 구상이다.
Hoechst는 아울러 독일 3대 염료 메이커들 중에서도 가장 대대적인 사내 구조 재편작업에 나서고 있다. 이같은 재편작업의 일환으로 같은 업종 타기업들과의 합작방식을 적극 선호하고 있다.
이미 염료사업 분야에서는 워커와의 합작으로 비노리트를 설립한 상태다. 농약부문에서도 훽스트 쉐링 아그레보를 설립 중에 있다.
Bayer 역시 의약품 등 수익성이 높은 사업분야로 점차 옮겨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상품별 사내구조 재편작업에 나서 섬유산업 분야를 떼어내기도 했다.

<화학저널 1994/12/26>